

Cheer-up Bangkok 2014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석사과정
2018-23969 최기훈

2014년 1월, 피피섬은 말그대로 천국이였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더 비치’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크라비에서 약 3시간 여 배를 타고 마주한 피피섬의 모습은 작중 인물들이 왜 이곳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미국, 프랑스, 콜롬비아, 스웨덴, 핀란드 등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반나절 보트투어를 떠났다. 근사한 배는 아니었지만 피피섬을 배경으로 선원이 나누어준 파인애플을 먹으며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다. 섬에 돌아온 후 그 여세를 몰아 해변 펍에서 태국맥주를 마시며 파티를 즐겼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악인 DJ Jazzy Jeff & Fresh Prince의 Summertime을 들으며 맥주 한 병에 취하는 피피섬의 밤이었다.



그림 1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선착장은 어제 내가 느꼈을 환희에 들뜬 새 여행자들로 가득찼다. 뺨한 차림의 여행객들 사이에서 눈에 띈 것은 샛노란색의 옷을 입고 책상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었다. 책상 주변으로는 현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 TV모니터 한 대와 태국어로 쓰인 풋말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현지어로 쓰여 있었기에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래서인지 ‘Shutdown Bangkok’이라는 영어문구가 더 눈에 띄었다. 방콕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피피섬에서 크라비까지 배를 타고 3시간 남짓, 크라비에서 방콕까지 다시 야간버스를 타고 14시간 여를 달려 방콕에 도착하니 늦은 새벽녘이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대학생 배

낭여행자였던 나는 택시의 유혹을 물리치고 일단 걷다가 만난 시내방향 버스에 무작정 올라탔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동이 튼 이후에도 방콕 시내는 매우 조용했다. 버스는 랑수엔로드를 경유했고 나는 마침 센트럴월드 쇼핑몰에 있는 은행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쓰다 남은 링깃을 환전해야겠다 싶어 그곳에서 하차했다.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차량은 거의 없었고 아직 쇼핑몰도 오픈 전이기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침식사를 먼저 해결했다. 센트럴월드플라자로 향하는 길에는 출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로에 다니는 차들이 없었고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쳐져있었다.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곧 기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거리 간이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고 매우 일상적인 분위기였다. 아침을 패스트푸드로 떼운 것을 잠시 후회하고 걸던 내 눈 앞에 나타난 것은 대로 위에 설치된 텐트였다. 그것도 한 두 채가 아니라 대로를 꽉꽉 채우고 있었고 피피섬 선착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풋말과 태국 국기들을 함께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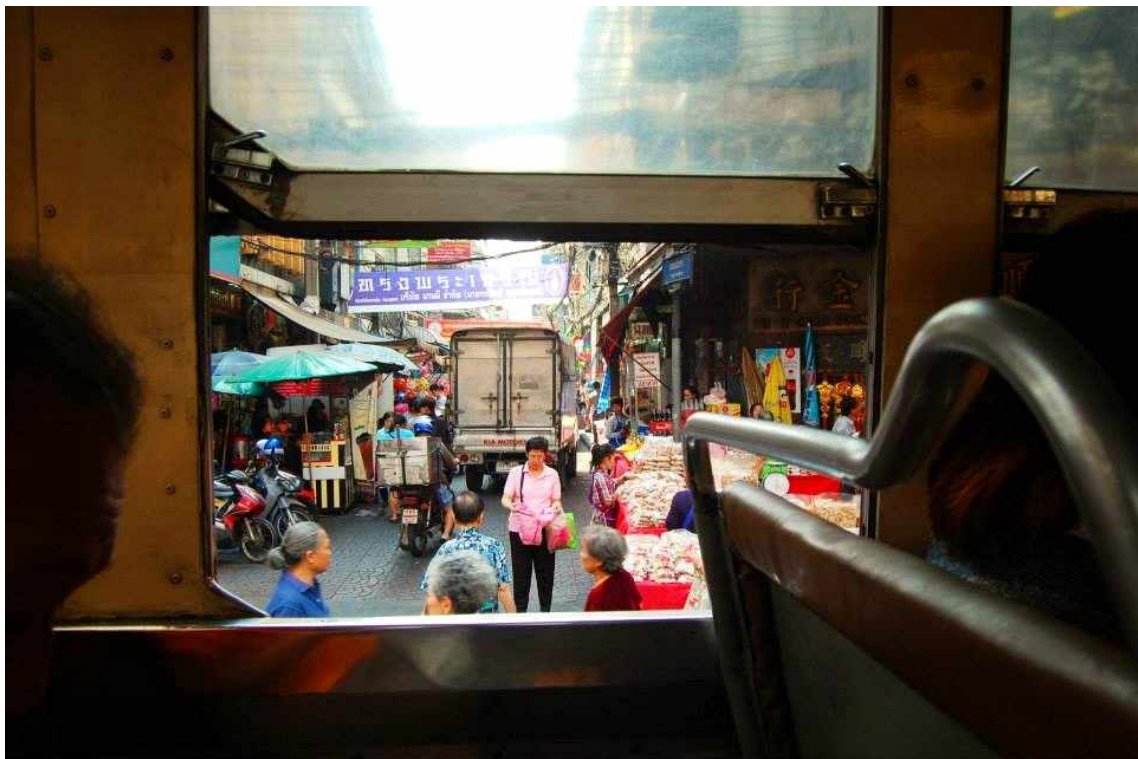


그림 2 방콕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낮선 광경에 어안이 병병해졌지만 나는 곧장 관광객으로서의 본분을 되찾았고 쇼핑몰 구경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사원까지 한 바퀴 돌고 나왔으나 도무지 그 많은 텐트와 거리에 나선 사람들에게 대한 호기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텐트 사이사이를 따라 걸었다. 텐트의 행렬은 생각보다 길었다. 곳곳에 피켓을 든 사람들과 대기 중인 앰블런스도 보였다. 거리와 거리가 만나는 곳에는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다. 이쯤되니 누가보아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닐까, 무언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온 방콕에서 나를 맞이한 건 'Bangkok City New Year 2014'와 'Shut Down Bangkok 2014'가 함께 쓰여진 대조적인 광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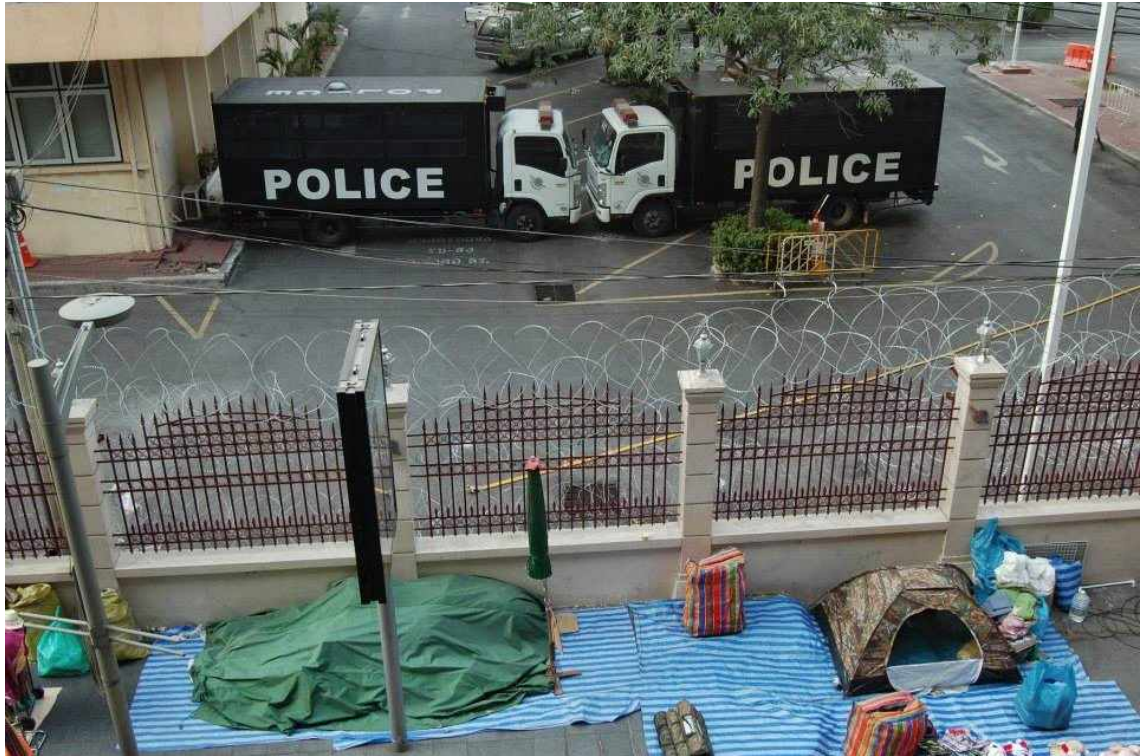


그림 3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닐까, 무언가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림 4 방콕에서 나를 맞이한 건 'Bangkok City New Year 2014'와 'Shut Down Bangkok 2014'가 함께 쓰여진 대조적인 광경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 모습은 어떠한 투쟁이나 저항의 형태보다는 차라리 축제나 행사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구호를 외쳤다. 나는 이유모를 흥분에 그들 사이를 거리낌없이 걸어다녔고 설새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라차담리를 지나 롬피니공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낯선 이방인인 나에게 미소와 ‘사왓디’였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현지어로 또는 되지 않는 영어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려 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몇몇 영어로 쓰여있는 피켓문구를 통해 나는 이 상황이 탁신 전 총리와 그의 여동생이자 현 총리인 잉락에 대한 반대 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했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이해관계나 사건조차 없는 여행객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눈빛과 손짓에서 발견한 어떤 기대와 열망만큼은 언어보다도 강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림 5 실상 그 모습은 어떠한 투쟁이나 저항의 형태보다는 차라리 축제나 행사에 가까웠다.

형용하기 힘든 기분을 뒤로 한 채 나는 숙소를 찾기 위해 카오산로드로 향했다. 카오산로드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배낭여행자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발품을 판 끝에 싼 값에 선풍기가 있는 방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 카오산로드의 상점을 구경하다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저녁에 나는 카오산로드를 벗어나 본격적인 관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도를 보니 카오산 로드 근처에도 꽤나 유명한 사원과 궁전들이 많았다. 나는 사원에 가보기로 하고 채비를 하였다.

큰 길을 따라 걷다보니 마주한 것은 Democracy Monument였다. 그 기념물은 돌아나가자 나는 또다시 시위대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의 입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듯 쌓아놓은 진지와 바리케이트로 철저히 구축되어 있었다. 민주화기념탑이 나에게 어떤 주문을 걸었을까, 나는 겁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갔다.



그림 6 나는 또다시 시위대를 만나게 되었다.

이 곳 시위대의 규모는 오전에 마주했던 시위대보다 훨씬 더 대규모였다. 텐트도 많았고 심지어 간이 음식점과 상점들도 군데군데 보였다. 시위대는 생각보다 나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 저녁이라 사람들도 대부분 텐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곳이 방콕 시내 한 가운데라는 사실만 빼면 사람들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한 상점에서 'Shutdown Bangkok'이 쓰인 티셔츠를 하나 구입해서 가방에 찔러 넣었다.



그림 7 그곳이 방콕 시내 한 가운데라는 사실만 빼면 사람들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한 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 가서 왕년에 스케이트보드를 탔던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대략 한 시간쯤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청년 한 명이 나에게 오더니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그를 따라간 곳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국수를 나누어 먹었다. 나는 태국어를 모르고 그들 중에 한국어를 하거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우리는 분명히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다. “능, 썸, 썸, 씨.” 그 날 대화로 배웠던 태국어로 숫자 세는 법은 내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다.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객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들이 내게 보여준 따뜻함과 친절은 잘은 몰라도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만 할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였다.



그림 8 그를 따라간 곳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국수를 나누어 먹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꼬마여행가의 모습은 완전히 던져버리고 학업과 파트타임 노동을 하며 지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나에게 2014년 1월 방콕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였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정, 열망, 집단의 신념이 만들어내는 묘한 케미스트리까지 당시 서울과 3년 여 전 방콕의 모습은 너무도 닮아있었다. 나는 이후 태국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였는지, 또는 완전히 무시당하였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얼핏 들었으나 새로운 정권이 시위대의 편이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그 때 내가 역사의 한 장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날의 일들이 태국의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면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전문기자는 아니었지만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위르겐 힌츠페터 씨가 1980년의 광주에서 느꼈을 가슴 벅참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연대의 힘을 보았다.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통해 ‘네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겨났다. 어쩌면 그 때의 방콕시민들 내게 건넸던 말들은 ‘돌아가 너도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었을까?